

지역업체들 인력 6310명 못구했다

임금 안맞아 작년 미충원 31% 증가
올 6월까지 1만 3631명 채용 계획

광주·전남지역 업체들이 적극적인 구인 활동에서 6300여명의 근로자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이 구직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2일 광주지방법고용노동청이 광주·전남지역의 상용근로자 5명 이상 사업체 3109곳을 대상으로 벌인 '2011년 하반기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 미충원 인원은 631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08명(31.4%) 증가한 것이며, 미충원율은 16.3%로 전년대비 2.4%포인트 상승했다.

'미충원율'은 적극적인 구인에도 채용하지 못한 인원을 구인인원과 비교해 백분율로 나타난 것이다.

특히 전체 미충원 인원 중 98.6%인 6222명이 300명 미만의 중소기업 사업체로 조사됐다. 지난해보다 1513명(32.1%) 늘어난 수치다.

지역별로 광주의 미충원 인원은 3307명으로 32.8% 증가하고, 미충원율은 15.6%로 1.0%포인트 상승

했다.

전남의 미충원 인원은 2915명으로 31.4% 증가하고, 미충원율은 18.2%로 3.5%포인트 상승했다. 미충원 이유는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이 구직자의 기대와 맞지 않기 때문'이 광주 31.6%, 전남 23.4%로 각각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광주에서 '구직자가 기피하는 직종이기 때문'(28.0%), 전남에서는 '학력·자격을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문'(19.4%) 등의 순이었다.

특히 직능수준이 높은 직무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업체에서는 '학력·자격을 갖춘 지원자가 없어'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4분기 구인인원은 3만 8710명(광주 2만2395명, 전남 1만

6315명)이며, 채용인원은 3만2400명(광주 1만9055명, 전남 1만334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4087명(11.8%), 2580명(8.7%) 증가했다. 산업별로는 건설업분야에서 1만251명,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9739명, 제조업 6127명 등이다.

현재 정상적인 경영과 생산활동을 위해 추가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인력(부족인원)은 1만2272명(광주 6540명, 전남 573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86명(9.7%) 증가했다.

올해 6월까지 채용 계획 인원은 광주 7099명, 전남 6532명 등 모두 1만363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37명 늘어날 것으로 조사됐다. /박정욱기자 jwpark@



송기진 광주은행장이 2일 하남산단 소재 중소기업 현장을 방문해 금융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光銀 “2012년은 현장중심 경영”

KJB광주은행이 2012년 발로 뛰는 현장중심 경영에 나선다.

송기진 은행장은 2일, 하남산단 소재 중소기업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중심 경영으로 새해 첫 업무를 시작했다.

이날 송 행장은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지역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더 가중 될것으로 예상돼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금융애로 사항을 해결 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

기업은행 청년인턴 240명 채용

기업은행은 상반기 청년인턴 240명을 공개 채용한다고 2일 밝혔다.

채용 대상은 졸업자 또는 다음달 졸업예정자다. 또 금융권 최초로 고졸 출신으로 대상을 확대해 채용인원의 20%(50명)를 뽑는다. 원서는

오는 12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www.ibk.co.kr)에서 받는다.

서류전형과 실무자면접, 직무적성검사를 거쳐 내달 초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가습기 보다 ‘에어워셔’

공기정화+가습...작년 20만대 판매 ‘돌풍’

국내 청정가습기 시장에서 물을 필터로 삼아 공기를 씻는 ‘에어워셔’(airwasher)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2일 관련업체에 따르면 지난해 가습기 시장은 절반 가까이 줄어든 반면, 에어워셔 시장은 2010년 13만대에서 지난해에는 20만대로 50% 이상 대폭 늘어났다. 가습기는 지난해 살균제가 인체에 해로운 것으로 알려지고, 예년보다 따뜻하고 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수요가 줄어들었다.

에어워셔는 물의 흡착력을 이용해 건조하고 오염된 공기를 씻어 주고 자연 기화를 통해 미세한 물 입자가 포함된 깨끗한 공기를 내보내 습도도 조절해 준다.

공기정화와 초미세 물입자 가습 기능을 동시에 갖춘 것이다. 에어워셔는 2007년 위니아만도가 국내 처음 제품을 선보인 뒤 삼성전자와 LG전자, 웅진코웨이 등이 제품을 잇따라 출시하면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10년 9월 에어워셔 시장에 진출한 LG전자는 신제품을



내세워 1년 만에 위니아만도를 제치고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양상이다.

LG전자가 40%대의 점유율로 30%대의 위니아만도를 제치고 이 부문 업계 1위에 올라 있고, 독일 벤타 등 여러 업체들이 5% 안팎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업체는 파악하고 있다.

LG전자는 살균제가 필요없고 3단계 필터와 무균가습으로 세균 걱정을 없앤 신제품 등 15만~69만원의 다양한 제품을 집중 선보여 2011년 판매량을 크게 늘렸다.

특히, 전기분해 방식으로 수조 내 세균 번식과 물 때 생선을 방지함으로써 안심하고 실내를 가습할 수 있는 신제품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연합뉴스



증권 파생상품 시장 “출발~”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12년 증권, 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김석동 금융위원장(오른쪽)과 김봉수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개장을 알리는 부자를 누른 뒤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서민대출’ 이자 부담 역대 최대

일반신용대출 8.27%로 1년만에 16.5% 상승

저소득층이나 저신용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신용·소액대출 등 ‘서민대출’의 금리가 지난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의 소득에서 차지하는 이자 비중은 역대 최대였다.

2일 한국은행과 통계청 자료를 보면 일반신용대출 금리는 2010년 12월 7.10%에서 2011년 11월 8.27%로 16.5% 뛰었다.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폭인 7.3%의 두 배가 넘는 수치다.

일반신용대출은 은행의 신용대출 중 집담대출을 제외한 것을 의미한다.

전년 말 대비 일반신용대출 금리 상승폭은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지속적으로 올랐다. 특히 8월 12.1%, 9월 16.5%, 10월 15.8%, 11월 16.5%

등 4개월 연속으로 두자릿수를 기록했다.

소액대출 금리도 2010년 말 6.65%에서 지난해 11월 7.18%로 8.0% 상승했다.

소액대출은 일반신용, 주택담보, 예·적금담보 대출 중에서 대출액이 500만원 미만인 대출이다.

한은 관계자는 “올해 들어 가계대출 금리가 전반적으로 올랐다. 신용대출이나 소액대출은 새희망플러스대출 등 저신용자 위주의 고금리 소액대출이 늘어 금리가 올랐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일반신용대출이나 소액대출 모두 특별한 담보가 필요 없어서 생활비 등을 위해 급전이 필요한 저소득층이나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이 주로 이용한다는 점이다.

금리 인상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저소득·저신용 가계의 부담이 커지는 이유다.

지난해 1~3분기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1분위 가구(전국 2인 가구 기준)의 소득에서 이자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2.5%로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3년 이후 가장 높았다.

매월 100만원을 빌다면 그중 2만5천원은 이자로 나간다는 뜻이다.

매년 1~3분기 기준 소득 대비 이자 비중은 2003년 2.4%에서 2004년 1.9%, 2005년 2.4%, 2006년 1.9%, 2007년 2.0%, 2008년 1.8%, 2009년 2.0%, 2010년 2.1%다.

한국경제연구원 안순권 연구원은 “불황기에는 신용위험이 더 커지는 만큼 은행이 신용대출이나 소액대출의 금리를 올리는 것으로 보인다. 생계비 등을 위해 이용하는 사례가 많아 서민부담이 증대됐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설 택배, 17일까지 발송해야 안전 도착

설 명절이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설 택배가 안전하게 도착하려면 17일까지 발송을 마치는 게 좋다는 전망이 나왔다.

현대로지엠은 “설 물량이 10일부터 본격적으로 쏟아져나와 13일을 기점으로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된다”며

“보내려는 택배를 실질적으로 귀성이 시작되는 20일 이전에 안전하게 전하려면 최소 17일까지는 발송을 완료해야 한다”고 2일 밝혔다. 현대로지엠은 물량 증가에 대비해 2~20일을 설 특별 수송기간으로 정해 비상 운영에 들어간다.

현대로지엠은 이 기간 2500여대의 택배 차량을 전국 현장에 추가 투입하고, 터미널 분류인력, 고객만족실 상담원도 각각 60% 증원한다. 또 24시간 비상 상황실을 운영해 전국 80개 지점과 750개 대리점의 긴급 배송을 지원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물 없이도 할 수 있는 휘나 핫 온열경영

무릎찜질, 허리찜질, 족욕, 좌욕, 반신욕, 사우나, 한번에...OK!

NAVER 검색창에 **휘나 핫 온열요법** 을 검색하세요

2012년형 신상품 특별 할인 판매



제조방법)특수제작한수퍼블랙드스크 B.C.P 내장하여 450도로 가열할 때 발생하는 원적외선, 음이온, 온열이며 일반온열발열체와는 비교가 안되는 획기적인 기능을 갖는 휘나 핫 반신욕기는 특별할인된 가격으로 한가정에 반드시 한 대씩 보급될것입니다. (2020년까지)

문의: 02-875-0600
www.hkshop.co.kr

계좌번호: 국민 404601-01-046107 예금주: (주)휘림건강 판매원, 제조원: (주)휘림건강 * 대리점, 취급점, 영업사원모집

암과 현대병을 쉽게 다스리는 방법

영종 위기 식물 177호 변비 생리통 특효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건강법

"세포의 생성을 촉진하고 혈액을 깨끗하게 하는 삼백초 효소 발효액은 심각한 환경오염에 노출된 인체에 건강을 되찾아주는 최고의 처방이다"

노화와 난치병을 이기는 삼백초의 놀라운 효능! 변비, 숙변, 생리통을 없애는 날마다 기분 좋은 건강 비결! 간질환, 당뇨, 신장질환, 동맥경화, 고혈압, 심장병, 부인병, 비만치료!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관리법 부림출판사 | 김상국 지음 | 값 5,000원

희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희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삼백초에는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게르마늄과 남성 성기 등에 중대한 작용을 하는 아연, 기운을 북돋는 유기물이 들어있다. 삼백초를 꾸준히 섭취하면 만성피로가 사라질 뿐 아니라 남자의 스테미너가 넘치고 기운이 솟는다!

문의: 070-7804-5358

제작: 농협 170118-56-120962 예금주: 강봉석

모리다 요시오 박사와 의사 이토 오사무의 치료 사례 - 25,000명을 임상실험한 결과 밝혀진 효소의 놀라운 효과

반건강 상태는 1개월만에 완치, / 정맥이 되살아 난다 / 불임이 치유된다 / 기미가 사라진다 / 속취가 없어진다 / 위궤양이 치료된다 / 무릎이 없어진다 / 치질이 치료된다 / 탈모가 치료된다 / 류머티즘 관절염이 치료된다...

100% 국내산 참옷나무 진액 참옷 골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 만큼 참옷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휘림참옷물, 이제 안심하고 편안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옷에도 공함이 있습니다. 그 물을 찾아 2대째 이 땅의 오조 주산지를 찾아 해매된 사람이 지하 250m 게르마늄 광천수를 이용해 휘림참옷물을 만들었습니다.

▶옷에 대한 숭한 소문이 있습니다.

그 소문을 넘어서 국내 최초로 옷 산업특구를 탄생시킨 사람이 이 땅에 정착한 참옷 문화를 만들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약식동원의 참다운 생활을 휘림 참옷물을 통해 경험해 보십시오

문의: 02-875-0600
www.hkshop.co.kr